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꽃과 신체의 조합된 이미지의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임 주 리

꽃과 신체의 조합된 이미지의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임 주 리

인 준 서

임주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현대미술은 매체의 다양성으로 복잡해지고 더할 나위 없이 난해한 미술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인은 다양한 매체와 각 장르의 상호 침투적인 상황에서 전통적 주제의 방법까지 다양한 양식을 받아들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 본인은 지극히 개인적 생각을 꽃과 신체 그리고 외부적 요소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속내를 은유적으로 표출하길 원하였으며, 상상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일상을 그림에 반영하고 새로운 예술적 의미로 재창조하여 자율적 세계를 만들어나가길 원하였다. 이는 예술가들이 처한 상황에 적절히 표현하고 구체화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작가의 세계관을 표현하게 되었다.

예술작품으로써 표현은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만남을 통해 나타내는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본인이 선택한 매체로 사용하는 꽃은 본인에게 내적세계관을 투영하기에 좋은 소재가 되었고, 동시에 본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특징적 신체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본인 작품에서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느끼고 대변하는 주체로 등장하는 꽃과 신체의 조합된 이미지에 대한 제작과정과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어떠한 조형적 특성을 가지는지 본 논고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꽃과 신체의 의미를 통해 이미지들을 분석하고 조합함으로써 재탄생되어지는 새로운 결과물로서 궁극적으로 미의 가치개념이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역사를 살피고 다시읽기라는 명제아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시점으로 기존의 가치개념에 대해 해석한다.

본 연구는 여성을 상징하는 꽃과 신체를 통해 자아와 또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 자아를 표현하려고 하였다. I 장에서는 여성상의 조합된 이미지가 어떤 경로로 탄생되었는지를 고찰하고, II 장에서는 꽃과 신체의 조합된 이미지에 대한 의미와 특징들을 서술하였다. 마지막 III 장에서는 본 작업의 예술적 표현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자유로운 형식이 본인 작업과 관련지어 분석하고자 한다.

본인은 개념적인 드로잉과 본인의 주된 작업의 조형작업을 통해 작품에 대해 더욱 깊이 통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과의 소통에 도움이 되고자 함을 밝힌다.

목 차

논문 개요	i
I. 서론	1
II. 본론	
1. 작품의 형성 배경.....	2
2. 작품의 조형적 전개와 특성	
1) 신체와 꽃으로 표현된 여성성.....	4
2) 응시의 관점에서 본 여성성	7
3) 조합된 이미지의 특성	9
III. 작품분석	13
IV. 결론	26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인간은 사회의 범주 속에 존재하는 동물이다.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유일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은 우연한 세상에 던져져 자신의 의식을 통해 세계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물들과 구별 짓는다 하였다. 20세기 후로 주목을 끌며 등장한 해체주의, 탈구조주의 그리고 포스터모더니즘의 담론들은 오늘의 미술세계에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타자와 주체와의 관계는 타자의 시선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로 다양하게 해석되어왔다. 과거 예술가들은 여성을 묘사하는 경우 남성 숭배, 고통 받는 희생물, 혹은 이상화 된 성녀 등으로 수동적인 이미지로 묘사해왔다. 따라서 타고난 성에 대해서 편협했던 과거의 수동적 관념으로만 그려졌던 여성의 모습은 이제 단순히 관능적인 형태미의 묘사 위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석을 가미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의 페미니즘 논의의 핵심을 사회 문화적으로서의 사회적 성(gender)에 대한 본질을 다루고자 함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본인은 이러한 여성성을 주체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재현하고, 신체적 특성을 주제화 하는 여성 신체미술과 조합에 의한 새로운 여성성을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의 중점적인 의도는 본인이 여성으로서 사회적 현실에 처한 상황에 대해 자아를 표출하고 미학적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인 작업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은 어디서 출발하였는가? 하는 그 발상을 추적하고, 또한 현 사회에 이르러 변화된 본인 스스로의 여성성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적 상황 속에 표현된 예술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이 논고를 바탕으로 연구 작품에 대해 이론적으로 구체화하여 다(多)초점의 현대미술 흐름 속에 위치를 다지고자 하며 더욱 가치 있고 명료한 의미로서의 작품을 제작하여 창의적이고 조형적인 그리고 표현적인 부분의 발전을 꾀하여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본 론

1. 작품 형성 정신적 배경

인간의 시선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대상을 그것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대상과 관계를 지움으로써 인식하게 된다.¹⁾ 하지만 주변의 대상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인식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집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고정된 견해와 사고로 고정관념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인간은 대상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고정관념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대상에 대한 단 몇 가지의 두드러진 외형적 특징을 보고 내면적 본질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한가지의 대상을 보며 사람들은 각각 다른 감성을 느끼고 반응하기도 한다. 그런 시각에 의해 바라보는 대상의 주체는 그동안 쌓아온 체험과 지식의 기억으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조건 지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세상과 대상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에 색안경이 씌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 개개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지하며 그 시각으로부터의 대상을 기억하고 표출하려 한다. 대상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대상의 바라봄에 지향점을 두고 내면표출을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보여 줌으로서 바라보는 대상을 주체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인은 여성작가이고, 스스로의 삶 속에서 내면의 감성에 충실하다보면 여성적 감수성의 표출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하겠다. 시각적 체계로 이루어진 여성의 감성적 상징인 도구로서 꽃과 본인이 느끼는 여성만이 지닌 신체적 특징인 성(性)에 대해 집착하여 최대한의 소재로 선택하였다. 본인의 시선에 의해 얻어진 꽃의 감정은 신체와 관련지어 감각을 통해 다시 한 번 느껴지게 된다. 여기서 본인을 대체하는 꽃의 이미지들을 통해 내부에서 일고 있는 감성의 물결을 읊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꽃과 신체는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하나의 내 모습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1) 존버거, 강명구역, 《영상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나남, 1993. p.37

현대사회의 억압과 소외에 대한 정체성,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탐구는 현대미술 맥락에서 보면, 페미니즘의 신체미술과도 관련되어 생각 되어질 수 있다. 여성으로서 여성의 몸을 지니고 살아가면서 표현되어지는 솔직한 사건과 감성을 바탕으로 여성성을 연구하다보면 작업은 다분히 그 성(性)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즉, 여성으로의 몸 이미지를 말한다. 페미니즘적 사고와 작품은 세계적이고 우주적, 또는 자연적이고 종교적인 쪽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진다. 반면 본인 작품에 등장하는 꽃과 신체가 조합되어 표현된 모습이 여성의 신체를 대변하듯 본인을 상징하는데 이는 어느 정도의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본인은 자연스레 겪는 현실의 삶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묘사하는데 더 충실하게 접근하였다. 표현하고자 하는 인체의 여성성을 남성들이 그들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것과 대조 되는 여성만이 체험할 수 있는 감성과 개인적인 경험들을 그 누구보다도 솔직하고 강렬하게 드러낸 것이다. 즉, 남성 위주의 해석으로 그려졌던 여성의 모습과 현재의 미진했던 모더니티한 여성의 단순한 형태적인 묘사와는 다르게 벗어나 새로운 해석을 가미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여성성은 생물학적인 성(sex)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 존재를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현재에 와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지 여성의 성의 역할이 사회구조 안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써 스스로 내면 탐구를 위한 능동적인 시선의 관찰자로서의 모습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꽃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 여성의 신체를 조합하여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남성의 시선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그 신체를 소유한 주체로서의 경험에 의해 여성 신체표현을 형상화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본인 작품에서 보여진 꽃과 여성의 모습은 여성신체의 주체로서, 또한 감정의 솔직한 대변자로서 여성성을 탐구하고 새롭게 여성의 인체를 재구축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2. 작품의 조형적 전개와 특성

1) 신체와 꽃으로 표현된 여성성

꽃은 수세기 동안 미술가들에게 예술적 영감과 상징의 복합적 기능을 하여왔다. 꽃은 인간에게 탄생과 성장, 죽음, 소멸의 순환을 함께하는 생명체로서 무상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계의 모든 감성적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연계의 모든 것을 통일하는 성장과 변화의 유기적 조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²⁾ 꽃은 아름다움 그 자체이면서 한편으로 평상시 생활감정 뿐 아니라, 속내를 은유적이고 암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상징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본 연구자에게 꽃이라는 소재는 단순히 시각적 소재라기보다는 내 자신의 삶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과거의 삶에서 겪었던 기억 속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잃어버린 추억과 그리움이 깃든 삶의 소재이다. 본인은 꽃에 잠재된 자아의 감정을 이입시키고 내적심상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꽃은 본인에게 있어 상징적 소재로서 다양한 감정을 대변하는 정신적 매개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꽃에는 기쁨, 슬픔, 희망, 사랑, 절망, 허무 등 인간의 깊은 감정의 세계가 스며들어 있다. 그러기에 작품의 소재로서 꽃을 선택한 것은 예민한 감정을 표현하기에 알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의 생명으로서 피고, 지고, 만개하는 생명의 과정을 함의(含意)하고 있는 소재로서 원초적인 상태의 인간 감정 변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기에도 좋은 소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꽃에 본인의 감정을 이입시킴으로써 꽃과 나는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갖게 되고,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나의 삶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었다. 그러므로 본인의 작품은 단순한 꽃의 이미지를 넘어서 본인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의 작업 또한 꽃과 신체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 신체의 정상적인 재현을 통해 표현하기 보다는 부분으로서의 신체 이미지, 얼굴이 없는 몸체, 등의 신체의 기관들이 조합되거나 분리되어 재구조화된 인체를 탄생시킨다. 본인 작품에서 인체는 격렬한 기운에 의해 해체되거나 유기적 구성을 잃은 기형적 형상을 띠고,

2) Benjamin Rowland, 《동서미술론》, 최민역 (서울 : 열화당, 1982), p. 172.

그것의 외부를 감싸는 환경과 권력에 의해서 시시각각으로 변모하는 원형이 부재한 인체로 나타난다. 이 굴절된 신체들은 근본적으로 모호하고 불확실하여 조화와 통일성의 미학 대신 부조화와 불일치의 미학을 내세우며, 결코 단일하고 일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단언하고 단절과 복합성, 불연속성과 조각화, 유동성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새롭게 탄생한 인체이다.³⁾

본인의 작품을 보면, 어딘지 알 수 없는 비현실적인 세계 속에 변형되어 구별할 수 없는 결합물이 새로운 생명체처럼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 꽃이 신체와 불음으로 해서 그 형체는 새로운 의미를 표출하려는 욕구의 충족 행위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신체를 주관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성을 보다 자유롭게 강조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본인의 작품도 마찬가지로, 나의 몸을 자르고, 알 수 없는 기형의 몸으로 아픔을 토해내고 현대미술의 담론을 바탕으로, 기존의 가치개념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서 새롭고 독창적인 인체표현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체되고 변형된 인체는 새로운 이미지로, 새로운 의미부여를 통해 사고와 의식의 틀을 깬다.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의 틀을 깨고, 전혀 새로운 모습을 찾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2) 응시의 관점에서 본 여성성

본인 작품의 일차적인 의의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대상화되는 것이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다음과 같다. 나는 시선 속에 존재한다. 나는 열려있다. 바라보여지는 대상으로서 나는 바라본다. 그런 나를 바라보라.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이 인물의 구성에는 시선의 순환 혹은 교환이라는 구체적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그것이 남성 혹은 그것으로 표상되는 세계의 공격적인 시선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순환관계가 성적인 공격성으로 충전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의 관계성은 단순한 성적인 대기상태나 긴장 이상의 것을 지시한다. 왜냐하면 이 꽃 얼굴을 한 벌거벗은 인물은 현실 속에서 조우하는 사소한 일들과 그것들이 빚어내는 관계들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미지들 속에서 어떤 개인으로서의 주체라는 향이 지배적이다. 바라보여지는 꽃 얼굴은 ‘바라보라’고 명령하는 주

3) 이수균 저,《몸과 미술》,(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1999,p.10

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몰입하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모든 주체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어떤 고통 혹은 자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을 유희(遊戯)로 전환하는 과정에 걸쳐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고통이나 고립감 보다는 밝고 조용한 젊은 여성이라는 느낌을 받지만, 물론 이것은 외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작품에서처럼 이 역시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 지는’ 어떤 양상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고착적인 시선의 반복은 피할 수 없는 틀처럼 삶의 세계에 규정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본인은 자아에 대해 해체하고 분열하는 히스테리를 갖는다.

본인은 자신을 두 가지로 분리시킨다. 현실에서 사람들에 ‘보여 지는 존재’와 ‘보는 존재’, 즉 이러한 분리는 얼굴과 몸의 분리에서도 감지되며 성기와 그것의 일반적 행위들, 또한 매번 새롭게 그려지는 그림들 속에서 각각의 인물들은 전혀 다른 감정, 맥락, 상황, 힘의 관계들 속에 처해 있다. 마치 동일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림들을 동시에 보는 것은 분열적 현실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인이 인물을 바라보는, 혹은 타자들이 바라보는 관심의 시선 속에 담겨있는 잔인함은 그 인물을 철저하게 물리적인 관계 속에 던져 넣는데 있다. 관계들도 물리적이고 가능성도 물리적이다. 심지어 꽃은 적나라한 신체의 고깃덩어리에서 뻗어나오기도 한다. 본인은 성적인 신체에 대한 일반적인 비하를 일련의 농담을 통해 수궁하였다. 이러한 엽기적 자기부정은 자칫 정체성의 자지러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그 반대의 양상이 나타난다. 그것은 끊임없는 분리와 분열, 타자화의 연쇄 때문이다. 본인은 자신의 초상을 편집적인 고착 대신 생산적 분열을 통해 다루었다. 나, 나, 그리고 나, 또 나...본인의 작품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차이가 생산되는 장소로서 다루고 본인이 자신의 여성성에 대면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일종의 무대로 끊임없이 변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꽃과 신체의 조합된 이미지는 일종의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매일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같지만 다르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동일한 판의 동일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만 매번 조금씩 다른 조합 혹은 의미를 보여준다. 본인의 캐릭터도 그러하다. 그것은 상이한 요소들과 결합하면서 변주한다. 주체에 대한 정체성을 조합틀로 표현함이 핵심인 것이다. 이 캐릭터는

의미를 유희적으로 조합한다. 매일 일기처럼 그리는 본인의 작품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이유는 바로 분열되는 자아의 유희적 표현인 것이기 때문이다.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그리기’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연결들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의미의 지시’가 아닌 ‘즐거움’의 영역으로 이어진다. 잘 그려진 그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낙서’(樂書)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작품들 속에 빈번히 등장하는 엽기적인 장면 - 신체에 대한 가해나 성기에 대한 곤란한 표현 등은 이러한 유희의 연장선상이 된다. 조합된 이미지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잠재적으로 모든 것에 연결된다. 하지만 그것이 유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게임의 조건들이 한정되어야 한다. 시선 속에 던져진 별거벗은 성기. 철저하게 대상화되어 있는 이 존재가 결합될 수 있는 세계의 모든 것들. 아마도 여기에서 이 조합의 연쇄를 최종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본인의 심성(心性)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에는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의 작품들은 현재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조합과 본인의 심성이 허용하는 배역 사이에 드리워진 어떤 경계를 따라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인물을 바라보는 관객의 관점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실망스런 욕망으로 가득 찬 타자들의 시선과 본인의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가 배역을 태어나게 한 전제로서 기능한다면 후자는 본인이 작업을 하면서 ‘느낀’ 즐거움의 시선을 공유한다. 여기서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은 사용하는 색채, 선, 형태, 요소들의 배치, 관계, 맥락, 그것들이 자아내는 해석 등등이다. 관객들 역시 ‘타자의 시선’에 대해 알고 있다. 관객 역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작품 앞에서 그들은 동일한 욕망을 상이한 것들로 차별화한다. 중요한 것은 ‘타자의 시선’ 속에 차이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본인의 역할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역시 타자와 관객의 분리, 그리고 자의식과 작가의식의 분리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을 생산하는 것은 자아의 여성성이다.

3) 조합된 이미지의 특성

일종의 자화상이자 일기 같은 본인의 작품은 한편으로는 간단한 선묘와 채색이 가미된 다소 나이브⁴⁾한 도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그림이 담고 있는 내용은 모호함 때문에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일종의 퍼즐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본인 작품 속에 꽃 모양의 머리를 한 나체의 여성은 자아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모습의 현대여성의 일반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때로는 잎이 다섯 개인 벚꽃 모양이었다가 또 어떤 때는 카네이션 등의 다른 꽃으로 바뀌기도 하는 이 꽃은 꽃술과 잎 새, 그것의 색과 방향 등을 통해 ‘얼굴’을 표시하고 있다. 별거벗은 여성의 몸은 선묘로 그려져 있으며, 머리를 매우 정교하게 채색하여 묘사하는 반면 최대한 단순하게 그려 여성의 몸을 그것의 태도나 행동을 표시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본인 작품에 등장하는 대상의 주체적 성격은 성적인 동시에 포개어져 있는 표면(表面)으로서의 얼굴과 그것의 기능으로서의 몸이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가면극에서처럼 얼굴의 의미는 사전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여성은 유혹적이지만 동시에 특정한 시선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마찬가지로 가면극에서처럼 무대와 신체가 갖는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 매번 새로운 표정을 직조해낸다.

시각적인 표현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형(form)과 색채(color)를 들 수 있다. 형태는 대상과 주제와의 거리를 지각하고, 색채는 느껴지고 본질적인 정서적 경험의 표현적 속성을 보여준다. 형태와 색채는 또한 서로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상호 작용한다.

본인의 작업에 있어서 꽃의 모양과 색변화는 감정변화의 수단, 내면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요소로 기능하며 시각적 혹은 상징적으로 표현됨으로서 따뜻하게 혹은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 색채는 인간의 감성을 감각적으로 대변해주며 다양한 표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서서 내면적 표현에 있어 변형을 가능하게 하고, 독특한 특성으로 주관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4) 나이브 미술가들은 원근법을 무시하며, 구상적인 주제를 다루고 그림은 작고 단조로우며 장식적이다. 잘 알려진 나이브 예술가로는 앙드레 보상, 까미유 뵘브와, 에드워드 힉스, 모리스 허쉬필드, 앙리 루소, 루이 비방, 알프레드 윌리스 등이 있다.

지의 조합으로 꽃과 신체가 합쳐져서 여러 일들을 하는 행위의 장면으로 내용을 담고 있다. 완전한 평면으로서의 이 작업은 명암도 없고, 밝음과 어두움도 없는 오로지 색채가 채워진 형태로 존재한다. 윤곽을 드리운 단순한 선과 색은 기형적인 이미지를 장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신체이미지의 절단된 이미지들은 기계적이고 단순히 조합된 새로운 생명체처럼 보이는 기괴함이 있지만 주변 환경과 관계되어 극대화시킴으로써 이미지가 지니는 여성의 에로스적인 힘을 실어주고자 하였다.

Ⅲ.작품분석



【작품 1】 untitled , 4000x2500mm, air ballon, 2007

【작품 1】 untitled

제작연도 : 2007

제 목 : untitled

재 료 : 천, 출력, 모터

크 키 : 4000x2500mm

제작기법 : 천, 출력, 재봉, 모터설치

제작과정 :

- 1) 작품 구상을 한 후 드로잉을 하였다.
- 2) 천위에 출력 한 후 재봉을 하기위해 천을 재단하였다.
- 3) 재봉하기 전 공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에 코팅처리를 하였다.
- 4) 위의 과정을 마친 후에 모터를 설치 한 후 공기를 넣고 형태를 부풀려 설치하였다.

내 용 :

본인 작품에 꽃의 여체들은 동일인이며 각기 다른 방향의 시선을 하고 있으며 타인들 시선으로부터 자아의 정체성이 분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로 이루어진 인격체로 각기 위치에서 몸이 붙어있는 것은 다양한 속내를 표출하지 못하고 그들의 시선과 마주하여 타인에 감정에 충실 할 뿐이다. 본인은 자아를 감추어 드러내지 않는 내적인 심리적 요소와 충돌을 가지고 와해되면서 소통의 장을 열어보고 아울러 자아의 여성성을 찾고자 작품화 하였다.



【작품 2】 나만의 꽃등심, 1800x2500mm, air ballon, 2007

【작품 2】 나만의 꽃등심

제작연도 : 2007

제 목 : 나만의 꽃등심

재 료 : 천, 출력, 모터

크 키 : 1800x25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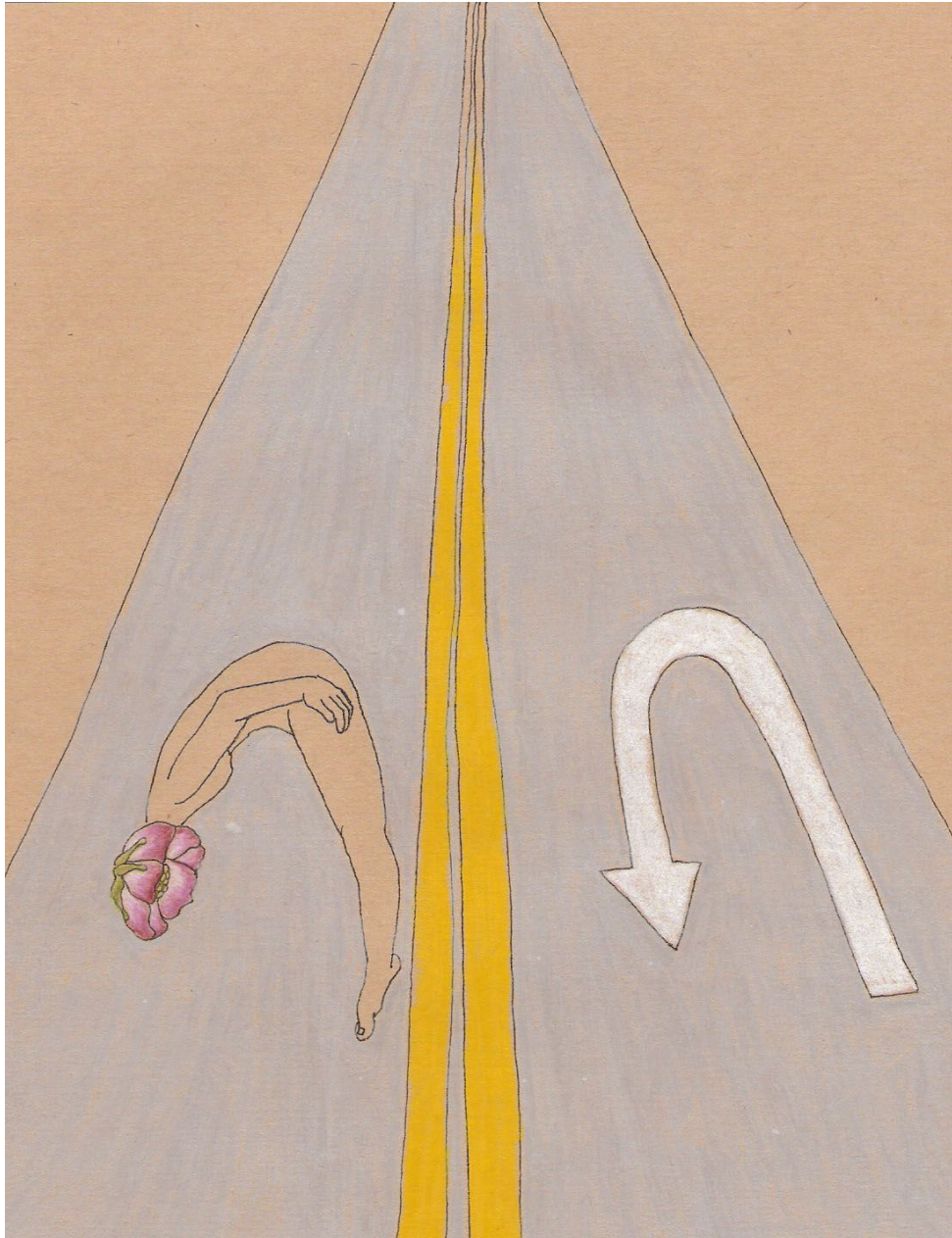
제작기법 : 천, 출력, 재봉, 모터설치

제작과정 :

- 1) 작품 구상을 한 후 드로잉을 하였다.
- 2) 천위에 출력 한 후 재봉을 하기위해 천을 재단하였다.
- 3) 재봉하기 전 공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에 코팅처리를 하였다.
- 4) 위의 과정을 마친 후에 모터를 설치 한 후 공기를 넣고 형태를 부풀려 설치하였다.

내 용 :

여성의 신체를 바라보는 성적인 시선에 있어, 본인은 그 이미지를 고깃덩어리로 대치하였고, 그와 결합한 꽃은 여성의 감수성을 형상화하여 나타내고자하였다. 단지 꽃등심의 살은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고 여성의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신체에 대한 자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여성적 감성을 꽃을 통해 그 정신적 아름다움과 여성으로서의 도도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3】 untitled, 200x250mm, drawing, 2007

【작품 3】 untitled

제작연도 : 2007

제 목 : untitled

재 료 : 크레프트지, pen, cream colored pencil

크 키 : 200x25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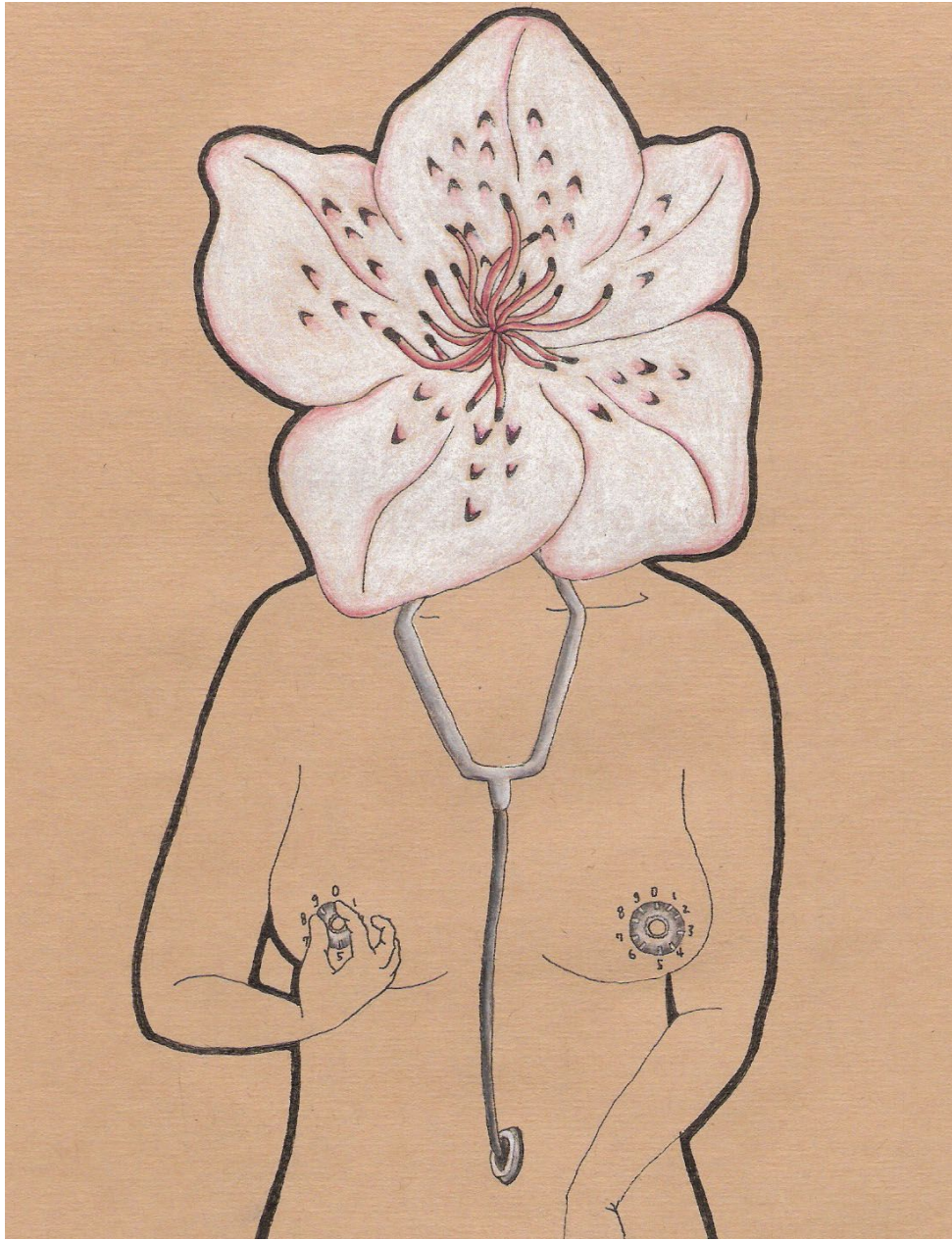
제작기법 : 드로잉

제작과정 :

- 1) 작품 구상을 한 후 크레프트지에 스케치한다.
- 2) 펜슬로 스케치한 선을 따라 펜으로 밑그림을 그린다.
- 3) 크림 펜슬로 어두운색부터 칠한 후 밝은색을 어두운색방향으로 그라데이션 하듯 그린다.

내 용 :

본인은 반복되고 직선화된 일상 속에 변화를 가지고자 길의 유턴 표시를 자기화 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속의 여체가 길바닥에 누워있는 상황은 변화의 타이밍을 못 잡고 그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자아의 방향에 대해 상실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공감할만한 이야기로 전하고자 위트 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4】 untitled, 200x250mm, drawing, 2007

【작품 4】 untitled

제작연도 : 2007

제 목 : untitled

재 료 : 크레프트지, pen, cream colored pencil

크 키 : 200x250mm

제작기법 : 드로잉

제작과정 :

- 1) 작품 구상을 한 후 크레프트지에 스케치한다.
- 2) 펜슬로 스케치한 선을 따라 펜으로 밑그림을 그린다.
- 3) 크림 펜슬로 어두운색부터 칠한 후 밝은색을 어두운색방향으로 그라데이션 하듯 그린다.

내 용 :

여성으로서 자신의 치부와 악은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깊이 숨겨 자신도 자신의 나쁜 것을 찾지 못하여 잃어버리고 싶어 하는 바람은 본인은 타인이 모르는 자신의 내면에 마음의 금고를 만들고 언제든지 꺼내어 기억 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하지만 그 금고의 외부의 영향으로 자신의 기억 코드를 찾아내 고자 하였다.



【작품 5】 untitled, 200x250mm, drawing, 2007

【작품 5】 untitled

제작연도 : 2007

제 목 : untitled

재 료 : 크레프트지, pen, cream colored pencil

크 키 : 200x250mm

제작기법 : 드로잉

제작과정 :

- 1) 작품 구상을 한 후 크레프트지에 스케치한다.
- 2) 펜슬로 스케치한 선을 따라 펜으로 밑그림을 그린다.
- 3) 크림 펜슬로 어두운색부터 칠한 후 밝은색을 어두운색방향으로 그라데이션 하듯 그린다.

내 용 :

여성의 신체 중 가슴은 모성의 상징인 동시에 타인의 시선의 성적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고 자아의 정체성에 대해 알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패스트푸드로 식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여성의 가슴이 더 이상 모성과 성적 대상이 아닌 다른 의미로서 자신을 위한 희생적 행위이다. 케첩을 뿌리는 행위는 자신의 희생으로 외부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작품 6】 untitled, 200x250mm, drawing, 2007

【작품 6】 untitled

제작연도 : 2007

제 목 : untitled

재 료 : 크레프트지, pen, cream colored pencil

크 키 : 200x250mm

제작기법 : 드로잉

제작과정 :

- 1) 작품 구상을 한 후 크레프트지에 스케치한다.
- 2) 펜슬로 스케치한 선을 따라 펜으로 밑그림을 그린다.
- 3) 크림 펜슬로 어두운색부터 칠한 후 밝은색을 어두운색방향으로 그라데이션 하듯 그린다.

내 용 :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상황은 인간의 외적인 면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상태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간의 심장은 사랑 열정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 살을 도려내어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여도 아무리 들여보아도 심장은 또 하나의 살덩어리에 불과하다.



【작품 7】 untitled, 200x250mm, drawing, 2007

【작품 7】 untitled

제작연도 : 2007

제 목 : untitled

재 료 : 크레프트지, pen, cream colored pencil

크 키 : 200x25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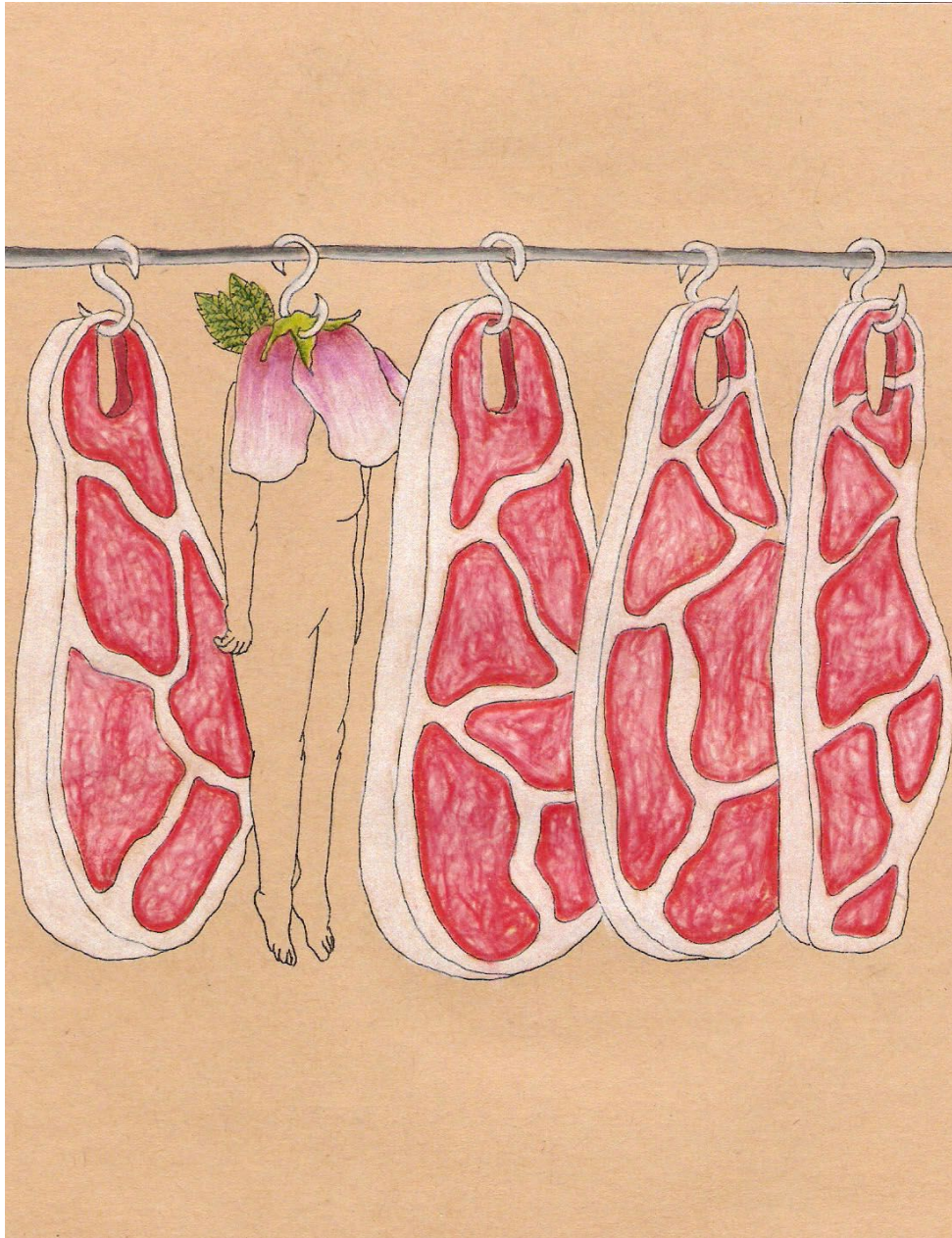
제작기법 : 드로잉

제작과정 :

- 1) 작품 구상을 한 후 크레프트지에 스케치한다.
- 2) 펜슬로 스케치한 선을 따라 펜으로 밑그림을 그린다.
- 3) 크림 펜슬로 어두운색부터 칠한 후 밝은색을 어두운색방향으로 그라데이션 하듯 그린다.

내 용 :

인간은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 시선 때문에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한다. 본인은 시선으로부터 치장하지 않은 나체의 모습으로 벤치에 앉아 의식하지 않은 시선에 도전을 해본다. 그러나 타자의 시선을 의식해 자아의 얼굴을 꽃으로 가리고 몸은 동물들의 위장술처럼 벤치의 모양대로 변해 나 자신을 숨기려 한다.



【작품 8】 untitled, 200x250mm, drawing, 2007

【작품 8】 untitled

제작연도 : 2007

제 목 : untitled

재 료 : 크레프트지, pen, cream colored pencil

크 키 : 200x250mm

제작기법 : 드로잉

제작과정 :

- 1) 작품 구상을 한 후 크레프트지에 스케치한다.
- 2) 펜슬로 스케치한 선을 따라 펜으로 밑그림을 그린다.
- 3) 크림 펜슬로 어두운색부터 칠한 후 밝은색을 어두운색방향으로 그라데이션 하듯 그린다.

내 용 :

현 소비사회를 살고 있는 시대에 정육점은 널려있는 육류들 가운데 자신을 고깃덩어리와 다를 것이 없는 상품화 된 존재로 이미지화 하였다. 쇠꼬챙이에 힘없이 매달려 팔리기만을 바라는 고기들 가운데 매달려 있는 꽃의 여체는 일상의 사회생활에 있어 타인들 손길에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어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9】 untitled, 200x250mm, drawing, 2007

【작품 9】 untitled

제작연도 : 2007

제 목 : untitled

재 료 : 크레프트지, pen, cream colored pencil

크 키 : 200x25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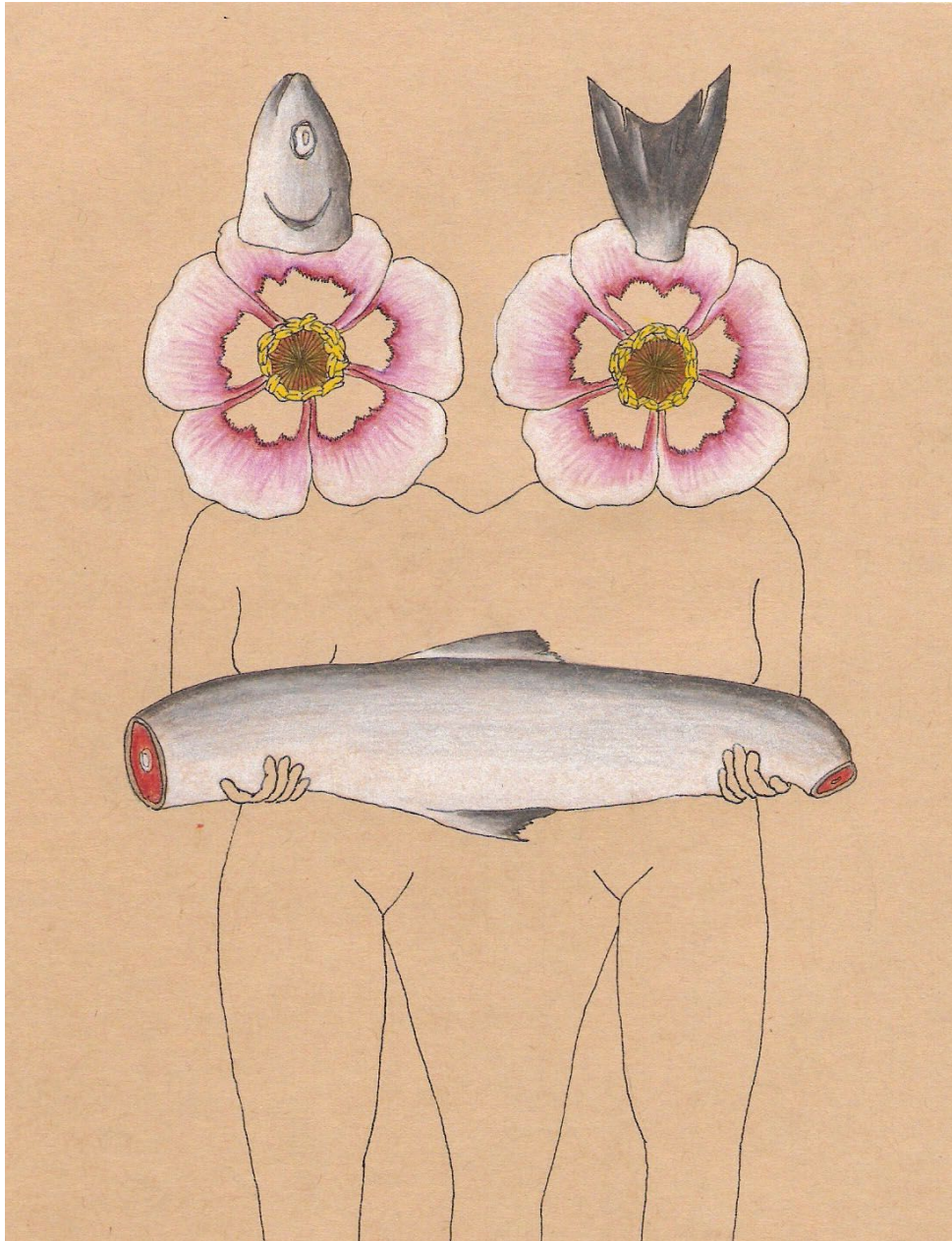
제작기법 : 드로잉

제작과정 :

- 1) 작품 구상을 한 후 크레프트지에 스케치한다.
- 2) 펜슬로 스케치한 선을 따라 펜으로 밑그림을 그린다.
- 3) 크림 펜슬로 어두운색부터 칠한 후 밝은색을 어두운색방향으로 그라데이션 하듯 그린다.

내 용 :

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다.
본인은 가지를 사회로 보고 꽃들 하나하나를 구성원으로 의미 지었다.
같은 가지에서 서로 공존하고 있지만 살아남기 위해 상대를 밟고 자신의 꽃을 가꾸며 힘주어 가지에 매달려 '사회 버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아내었다.



【작품 10】 untitled, 200x250mm, drawing, 2007

【작품 10】 untitled

제작연도 : 2007

제 목 : untitled

재 료 : 크레프트지, pen, cream colored pencil

크 키 : 200x250mm

제작기법 : 드로잉

제작과정 :

- 1) 작품 구상을 한 후 크레프트지에 스케치한다.
- 2) 펜슬로 스케치한 선을 따라 펜으로 밑그림을 그린다.
- 3) 크림 펜슬로 어두운색부터 칠한 후 밝은색을 어두운색방향으로 그라데이션 하듯 그린다.

내 용 :

인간 내면의 이중성을 시각적으로 둘로 나누어 같은 몸이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삼쌍둥이와도 같은 성향을 표현하였다.

한사람의 개체지만 자신 안에서의 이중적 개체는 각자의 소유에 대한 욕망과 갈등으로 삼쌍둥이의 하나의 살로 이루어진 존재지만 각기 다른 개체로 다른 감정을 느끼고 각자의 소유에 대한 열망과도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다. 본인은 삼쌍둥이는 기형이 아닌 인간의 내면적 이중성을 솔직하게 시각적으로 드러낸 인간이라 생각하고 인간의 이중성과 삼쌍둥이를 비교 표현하였다.



【작품 11】 untitled, 200x250mm, drawing, 2007

【작품 11】 untitled

제작연도 : 2007

제 목 : untitled

재 료 : 크레프트지, pen, cream colored pencil

크 키 : 200x250mm

제작기법 : 드로잉

제작과정 :

- 1) 작품 구상을 한 후 크레프트지에 스케치한다.
- 2) 펜슬로 스케치한 선을 따라 펜으로 밑그림을 그린다.
- 3) 크림 펜슬로 어두운색부터 칠한 후 밝은색을 어두운색방향으로 그라데이션 하듯 그린다.

내 용 :

본인의 드로잉 화면에 자유분방한 고양이를 구속하고 다시 화면에 옮기는 행위는 현실, 비현실 사이에 자아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표현이다.

IV. 결론

과거 페미니즘 시각에 의한 성의 구별은 선천적이며 확정된 개념으로 사회구조에 형성되어진 관습과 억압된 구조 속에 여성은 비주체적이고 동등하지 못한 성으로서의 여성을 제시되어져왔다.

오늘날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의 본인은 사회의 지배성과 억압성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페미니즘 문제가 아닌 즉 남성에게 호소하는 페미니즘적 표현이 아니라 현대여성들에게 여성으로서 주어지는 즐거움과 혜택을 전달함에 있다.

이러한 모티브에 의해 작품에 나타나는 신체 이미지들은 창조해 재현하거나 재해석한 의미로서가 아닌 새로이 창조 되어진 이미지들을 조합하여 그 의미를 전달하고 감각의 주체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현되어지는 신체 이미지들은 나의 대체 이미지로 출발하지만 감상자들은 그들의 신체를 주체로 상상을 하며 이야기를 만들어 내었다.

본인의 일상과 상태를 꽃과 신체의 조합을 통해 작품화 하였지만, 감상자들은 작품을 보며 자신도 같은 신체를 가지고 있고, 같은 상황을 겪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정상적이고 가혹한 형상들은 밝은 색채와 유희적 서술로 오히려 감상자들에게 가깝고 통쾌하게 다가갔다.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잔인성에 대한 통쾌함 내지는 정상성에 대한 진부함에서 오는 심리적 요인이라 해석되었다. 이는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기이한 신체 이미지들의 아름다움 또한 정상의 아름다움 못지않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본인은 이러한 조합된 이미지로서 새로운 해석을 가미하게 되었다. 여성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 본질론적 입장을 가지고도 있으며 주체적 시각에서 재현하는 신체적 특성을 주체화하는 여성 신체미술과 조합에 의해 과장된 섹슈얼리티나 포르노적 노출의 여성적 에로티즘 등이 혼재하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현 시대에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창출되면서 복합된 이미지 또한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도 다채롭고 창의적인 표현을 기르고 재료탐구와 기술적인 연구를 하여 다양한 현대미술의 맥락 속에 자리매김을 하는 작가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 논고를 마친다.

참고문헌

- 1) W.타타르키비츠, 《미학의 기본 개념사》, 손효주 역, 미진사, 1997
- 2) 존버거, 《영상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강명구 역, 나남, 1993 p.37
- 3) Benjamin Rowland, 《동서 미술론》, 최민 역, 열화당, 1982 p.172
- 4) 이수근, 《몸과 미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p.10
- 5) 조르주나타프, 《상징.기호.표지》, 김정란 역, 열화당, 1987 p9
- 6) 그리젤다 폴록,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윤난지 역, 눈빛, 2000 p45

ABSTRAC

A study of combined image of the flower and human body

Im, Ju Ri

Majored in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Modern art has become very complex with the diversification of a medium and is pouring arts in its most intricate forms ever. In the contest of diverse medium and mutual penetration of each genres, I have managed to accept a variety of forms from the traditional topics. Under these circumstances, I have focused on expressing one's self and the most personal thoughts and feelings through the state of flowers, body and external factors.

Artists hoped to express their thoughts and feelings as a metaphor. They have revealed their everyday life based on their imaginations and experiences recreating a new artistic meanings ultimately creating their own free world. With a proper expression and the realization of the situation they were in, they have succeeded in expressing a better artistic view.

An artistic expression is the result of human interior and

exterior encounter. A flower which I have chosen as the medium, has become a good material to project inner world view and at the same time, gazing oneself is the representation of interest in distinct features of the body.

I'd like to describe the contents and the process of producing a combination of a flower and the body which represents a self spokesman from the other's perspective and which formative features it has with this paper. Through the meanings of the flower and the body, I'd like to question the values of the concept of artistic value of ultimate result by analyzing and combining images. At this point, we reconsider the history, and under the proposition of rereading, a traditional concept of value is reconsidered by various perspective in a diverse fields.

In this research, I have expressed one's ego by a flower and the body which are the symbols of women or the relationship with the society. In chapter I, how the combined image of female was born in which path is considered and in chapter II, features and the meanings of combination of the flower and the is described. Finally in chapter III, in order to express the meanings of artistic expression of the work, the relationship between a free formation and the work is analyzed.

I hope that this would be an opportunity to have a better insight of the work through conceptual drawings and the formative work and to help communicating with the audience.